

‘청소년 철학소설’ 시리즈

《공자 지하철을 타다》《퇴계 달중이를 만나다》 선정기

생활인의 손에 잡히는 철학.

세상의 인과적 본질에 대한 관심, 공간과 시간과 4차원 너머 형질까지 아우른 궁리야말로 ‘생각 하는 사람’의 징표다. 의미 있는 지식이 몸에 배며, 사물과 고금의 조리에 대한 분별이 일상화될 때 비로소 ‘생각 있는 사람’이다. 극언하자면, 그렇지 못할 때 ‘사람이 되 생각 없는 사람’이라 한들 뭐라 할 것인가. 재창간 2주년을 맞으며 떠올린 <출판저널>의 생각이다. 2월 ‘이달의 책’을 고르는 데도 그런 생각이 의사 선택의 행간을 차지했다. 공교롭다고 할까. 소설, 다큐, 교양, 에세이를 막론하고 ‘이달의 책’ 후보 도서 대부분이 유난히 그런 생각으로 점철된 것들이었다. 선별 과정에서 작위나 자의恣意 따윈 없었다. 자연스럽게 새해 벽두 시중의 서가 앞머리를 장식한 서물의 갈래가 그러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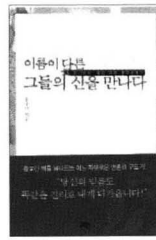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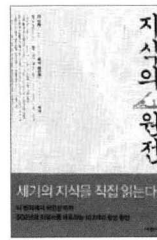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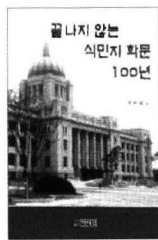
<출판저널> ‘이달의 책’ 후보군은 발레리 줄레조·길혜연의 《한국의 아파트 연구》, 김세환의 《끝나지 않는 식민지학문 100년》, 최완기의 《역사의 갈림길에서 고뇌하는 조선사람들》, 존 캐리의 《지

식의 원전》, 김나미의 《이름이 다른 그들의 신을 만나다》, 함정임의 《춘하추동》, 천명관의 《고래》, 청소년 철학소설 시리즈인 김종욱·전호근의 《공자 지하철을 타다》와 김은미·김영우의 《퇴계 달중이를 만나다》, 신영복의 《강의-나의 동양고전독법》, 이주현의 《생각하는 그림들-정》《생각하는 그림들-오늘》, 권오길의 《바람에 실려온 페니실린》, 김현아의 《전쟁과 여성》 등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시대에 대한 독특한 분별, 타자적 변용을 통한 자아의 발견, 생활 속의 철학 이입 移入 등 예사롭지 않은 문법으로 시종한 것들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명도明度 뚜렷한 메시지와 밀도 있는 호소력을 지닌 몇 권의 책을 유력한 ‘이달의 책’ 반상에 올려봤다. 《역사의 갈림길에서 고뇌하는 조선사람들》, 《지식의 원전》 철학소설 시리즈 《공자 지하철을 타다》와 《퇴계 달중이를 만나다》 《강의-나의 동양고전 독법》 《전쟁과 여성》이 그들이다.

22세기 후손들은 이 시대와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 《역사의 갈림길에서 고뇌하는 조선사람들》은 옛 시대의 행장行狀을 통해 그 해답을 건질 수도 있는 서물이다. 책은 조선 후기 봉당정치와 실학, 개화 등 역사의 갈림길에서 고뇌했던 선각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당대의 갈등과 변화에 겨워했던 사람들, 그들로 의인화된 변화의 추동력이어야

‘이 달의 책, 이 달의 저자’ 2월 후보도서



《한국의 아파트 연구》 발레리 줄레조 지음·길혜연 옮김 | 아연출판부 | 288쪽 | 값 15,000원  
한국의 아파트 단지가 갖는 주거문화적 성격을 외국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지리학자인 저자는 프랑스 세떼와 한국의 아파트를 비교하며, 한국도시와 삶의 양식에서 아파트가 갖는 문화적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끝나지 않는 식민지학문 100년》 김세환 지음 | 박이정 | 366쪽 | 값 12,000원  
제목처럼 이 책은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지 60년이 되었지만, 우리 학문은 여전히 식민지의 그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시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국문학의 왜곡, 전통의 부정, 오도된 사관을 지적하는 저자는 예컨대 국적 없는 최남선의 시보단 ‘동문선’의 시문을, ‘한국사개설서’ 대신 삼국사기를 권한다.

《역사의 갈림길에서 고뇌하는 조선사람들》 최완기 지음 | 이화여대출판부 | 368쪽 | 값 28,000원  
격변의 연속이었던 조선 후기, 개혁과 변화를 갈망하는 민중과 선각자들의 갈등과 고뇌를 다룬 책이다. 지배 계층의 무분별한 정쟁 속에서 사회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역사 변화의 주체로 기능하고자 하는 선각자들을 통해 이 시대의 의미와 나아가야 할 바를 되묻게 한다.

《지식의 원전》 존 캐리 편저 | 이광렬 외 옮김 | 바다출판사 | 822쪽 | 값 28,000원  
르네상스 이후 다빈치에서 파인만까지 500년 동안 과학과 지성사를 대표하는 지성 102명이 직접 쓴 최고의 원전들을 모은 책이다. 퀴리부인과 다윈의 기록, 도킨스의 유전자 에세이, 칼 세이건의 우주론 등 잘 알려진 인류사적 지식들의 태동과 발전을 그들의 생생한 기록을 통해 접할 수 있다.

《이름이 다른 그들의 신을 만나다》 김나미 지음 | 고즈윈 | 264쪽 | 값 12,800원  
종교 전문 리포터인 저자의 눈으로 본 열두 명의 종교인들 이야기다. 한국에 전파된 이슬람, 수피즘, 정교회, 바하이 신앙, 힌두교, 유대교, 남방불교, 자이나교, 콥트 기독교, 라마교, 퀘이커, 조로아스터교 등을 소개하는 한편, 그들의 공통된 미덕은 ‘사랑과 평화’임을 재삼 확신케 한다.

《춘하추동》 함정임 지음 | 민음사 | 220쪽 | 값 9,000원  
평전도, 픽션도 아닌, 화가나해석의 삶을 소설적으로 재구성한 장편소설이다. 작가는 소설의 모티브가 된 화가나해석이란 존재를 통해 여성으로 태어나 예술가로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진지하게 되묻고 있다.

말로 역사의 선순환을 가능케하는 주역임을 책은 시사하고 있다.

《지식의 원전》은 말 그대로 '지식'의 원전인 듯 싶게, 500년의 지성사를 관통하는 지혜와 발명·발견의 원천을 소개하는 데 공을 쏟고 있다. 다빈치에서 다윈, 도킨스, 퀴리부인, 파인만 등 인류 지성을 대표하는 102명 지식인들이 직접 쓴 원전은 읽는 이에게 색다른 지적 경이를 맛보게 한다.

《강의-나의 동양고전독법》은 20년 영어의 몸이었던 지은이의 처절한 지적 몸부림의 소산이기도 하다. 감옥에서부터 남다른 열정으로 쌓은 고전에 관한 공력을 바탕으로, 저자는 동양적 '관계론' 위에서 시·서경, 주역, 논어, 맹자 등을 소개하고 있다. 대학에서 '고전강독'으로 진행됐던 강의 내용을 묶은 본문은 쉽게 읽히고 살뜰하게 이해된다. '철학의 빈곤'을 자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읽어볼 만하다.

전쟁에서 여성은 그 여백의 존재인가. 《전쟁과 여성》은 '전쟁의 기억을 여성의 언어로 새롭게 푸는' 시도를 통해 단언 '그렇지 않다'고 확인한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그 시대를 살았던 여성들의 증언은, 그들이야말로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살육과 학대와 고통의 창 끝에서 서 있는 존재임을 일깨운다. 남성부재 시 생계책임, 전시 강간피해, 비운의 여전사 등의 실증적 사실 또한 '전쟁 속 여

성'의 비장한 의미를 되문게 한다.

이 땅 남녀노소와 장삼이사가 모두 철학도라면? 그렇게 안 되란 법도 없다. 성인에게도 유의미한 청소년 철학소설 시리즈 《공자 지하철을 타다》《퇴계 달중이를 만나다》는 그런 도발적 시도를 감행한 생활 속의 철학서다. 기획의도가 가록하고(?), 철학을 생활인의 패션으로 올려놓고자 하는 역발상이 돋보여 '이달의 책'으로 꼽히기에 이르렀다. 《공자》는 '공자왈'의 핵심을 쉽고 재미있고 온전하게 풀어낸다. 박제된 공자가 아닌, 오늘에까지 살아 있는 공자를 만나게 한다. 장애인, 영어 공용화, 피어싱과 같은 오늘의 '팩트'에 대한 공자의 생각을 알아보기도 한다. 《퇴계》에선 타임머신을 타고 500년 전 안동땅으로 배낭여행을 떠난 달중이를 통해 퇴계의 모든 것을 만난다. 옛 학문을 알아보고, 사단칠정과 주기·주리론, 리발설 등 퇴계 철학의 진수도 맛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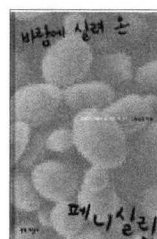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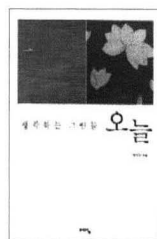
플라톤, 칸트, 노자 등 후속 시리즈의 전편인 이들 두 권의 책은 마치 사탕 발린 쓴약과도 같다. 영혼의 '쓴약'이라 할 성현들의 로고는 곧 우주에 대한 분별이다. 세상의 인과적 본질에 대한 도락이다. 이 책이 양서인 까닭은 그런 철학적 덕목을 생활인의 손에 잡히는 반경에 안겼음에 있다. **한겨레**



《고래》 천명관 지음 | 문학동네 | 456쪽 | 값 9,800원  
제10회 문학동네소설상을 받은 작품. 소설에 대해 누구나 갖고 있는 기존의 상식을 여지없이 깨뜨려 버린 이 소설은 낯설음과 기이함을 독자에게 안겨준다. 산골 소녀에서 소도시의 기업가로 성공하는 금복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그녀를 둘러싼 갖가지 인물 사이에서 빛어지는 천태만상, 우여곡절을 숨가쁘게 그려내고 있다.

《강의-나의 동양고전독법》 신영복 지음 | 돌베개 | 516쪽 | 값 18,000원  
그동안 저자가 '고전 강독'이란 강좌명으로 진행해 왔던 강의를 정리한 책이다. 저자는 동양적 삶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인성의 고양이며, 이 인성의 내용이 바로 인간관계라고 말한다. 이같은 동양적 가치, 즉 '관계론'의 관점에서 시경, 서경, 주역, 논어, 맹자 등의 동양의 대표적 고전을 새롭게 풀어 소개하고 있다.

《생각하는 그림들-정》 《생각하는 그림들-오늘》 이주현 지음 | 예담 | 188쪽·222쪽 | 값 13,000원, 15,000원  
우리의 일상이 진솔하게 담긴 그림이 전편에 가득하다. 《정》에 실린 50점의 그림과 글들은 모두 시공을 초월해 크게 다를 것 없는 사람살이의 모습을 담고 있다. 《오늘》은 이중



섭, 신학철, 강요배, 남궁산, 김영희, 김종영, 오형근, 안규철, 박성태 등의 우리 시대 예술가 39인의 작품을 진지하게 관찰하고 있다.

《비람에 실려 온 페니실린》 권오길 지음 | 지식사 | 272쪽 | 값 12,000원  
점점 확산되는 에이즈,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사스와 같은 바이러스성 질병 등 과학자들이 번식을 막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단세포의 세계를 조명하는 책이다. 저자는 독특한 필치의 서술을 통해 인간과 공생관계일지도 모를 세균과 염색체의 오묘한 비밀을 캐고 있다.

《전쟁과 여성》 김현아 지음 | 여름언덕 | 326쪽 | 값 12,000원  
전쟁에서 여성이 치러야 할 고통, 그리고 비장한 기억을 되살리는 책이다. 저자는 베트남과 한국에서 전쟁을 겪은 여성들의 다른 기억을 다큐멘터리처럼 실려내고 있으며, 책 후반부에서 전쟁의 와중에 여성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천착하고, 여성과 평화의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신을 드러내고 있다.